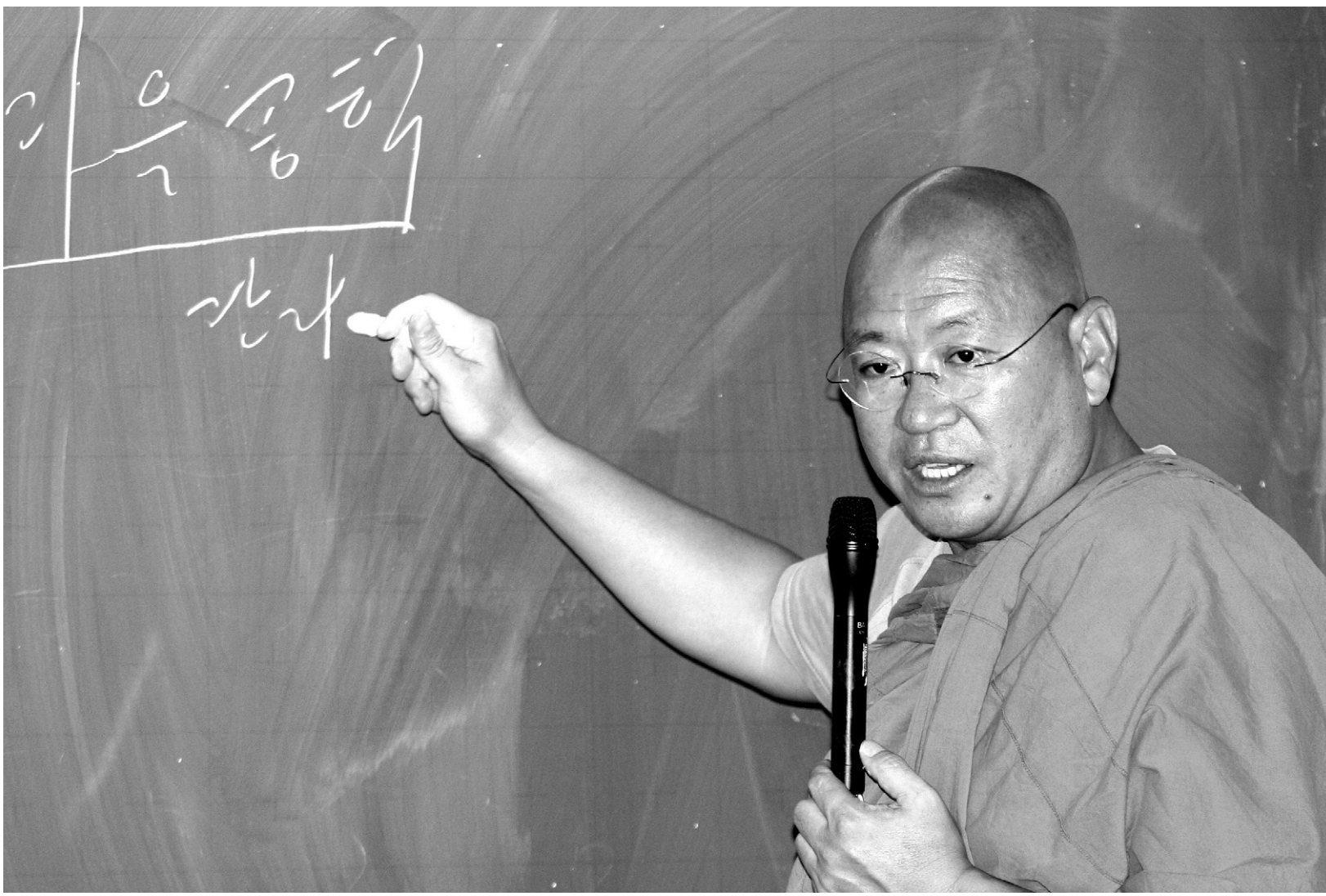


마음산업 · 수행 · 포교 목적은 ‘민중의 행복’



본다빠라 스님은 8월 24일 조계사에서 열린 '마음산업, 불교에 길을 묻다' 특강에서 불교가 마음산업을 통해 대중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음산업, 불교에 길을 묻다’

본다빠라 스님 (김해 반나라마 지도법사)

조계사(주지 도문)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이 올해 3월 교육과학부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정식 인가받고 9월부터 본격적인 개강을 했다. 교육원은 개원 기점으로 8월 24일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본다빠라 스님의 '마음산업, 불교에 길을 묻다' 특강을 3차례에 걸쳐 마련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화장애 등 마음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음산업'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다빠라 스님은 이날 마음산업의 정의 및 현황, 마음산업과 불교의 비전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특강에 이어 9월 21일에는 '마음의 실제 및 특성, 마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10월 26일에는 '수행의 필요성과 지향점 및 기술'에 대해 특강이 열린다.

정리=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자료제공)

‘마음산업’의 정의

여러분들은 마음을 팔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대답은 '된다'입니다. 마음산업이란 한 마디로 마음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 욕망, 분노, 교육, 경영, 스포츠, 예술, 의료 분야 등에서 마음의 관리, 마음에너지 보충, 뇌와 마음의 휴식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심리학, 심리상담, 정신의학 등에서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교수행자는 수행의 구체적인 영역인 마음작용 원리를 수행과 깨달음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마음관리에 관한 정보를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산업은 불교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마음작용 이론인 마음과학과 그것에 기초해 마음작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론과 기술인 마음공학을 활용해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뇌가 아닌 마음과학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로가 의존해서 상호작용하지만 뇌는 마음이 아닙니다. 뇌는 뇌 차원에서 마음은 마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뇌를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은 많이 개발됐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문제에 대해 피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민중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재화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얼마나 유효하고 편리한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느냐가 핵심이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본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우리는 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제품을 우리는 정당하게 소비했고, 그는 우리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중은 자신들이 필요로 한 것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적과 사회의 목적이 일치하면 사회는 가장 크게 변화합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신자본주의 영향으로 다차원의 욕망과 경쟁, 불평등과 폭력에 노출돼 민중의 삶은 거칠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지치고, 마음에너지는 고갈되고, 스트레스나 갈등 지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민중이 자유로운 삶, 여유로운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수행자의 중요한 사회적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산업, 새로운 영역

불교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마음관리 이론과 방법을 단순히 깨달음을 성취하는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업이 아닌 일반인들은 수행을 반드시 깨달음에 국한해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취미활동으로도 명상을 훌륭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영역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라한트(Arahant)나 깨달음을 위한 도구 >육망이나 이기심, 분노, 편견이나 선입견 등 마음관리 도구 >교육, 경영, 스포츠, IT 등 전문분야 화용 >생산성 향상 도구 >질병치료 요구 >성인병 관리 도구 >뇌와 마음 휴식 도구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관리 도구 >뇌과학과 마음과학 연구 도구 >마음건강 도구 >취미 생활 등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불교의 목적과 사회의 필요성이 일치해 불교와 수행을 사회에 회향할 수 있습니다.

마음산업 시장의 잠재력

2005년 5월 말 미국 국제정기 명상을 판매했다고 신고한 액수만 미화 67억불이라고 말합니다. 한화로 약 8조원 정도입니다. 2010년 말 전 세계 프로 축구 시장이 400억불이라고 합니다. 마음산업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마음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대신 마음산업 프로그램 개발 시 이것이 유효성을 지니는지, 사람들이 간단히 쓸 수 있는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산업과 불교포교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입니다. 불교와 수행의 목적은 민중이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불교교단과 수행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산업의 필요성

모든 산업은 사람의 필요에 의한 사용가치에 주목해 창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전문가를 발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도 현실적인 삶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교환하지 못해 상품화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다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등장하고 그런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더 치밀하고 유용하게 발전시켜 인류 진보에 기여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치료행위가 사용가치가 아닌 상품가치로 전환되고, 치료가 봉사 아닌 직업이란 사실에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그들도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충당해야 합니다. 때문에 치료를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가 있어 인류의 삶은 풍요로워졌고 의학은 점차 발전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욕망, 이기심, 분노, 적의, 원망, 서운함, 편견, 선입견, 광기 등으로 요동치는 마음작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 과도하게 소모된 마음에너지로 인해 무기력한 사람, 우울증으로 괴로운 사람, 뇌와 마음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뇌와 마음의 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불교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마음관리 이론과 방법을 제공해 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한 사회참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의사, 즉 심의(心醫)라고 했습니다. 마음관리 이론기술을 제공하고 자

사찰탐방 대비정사

기획 PR

자성(自性)의 등불로 ‘영남 어산 범패의 맥을 이어가는 사찰’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과 포교활동을 위해 수행정진하면서 불법포교와 참선수행 도량의 역할과 더불어, 연초면 연사리 해곡산 자락에 위치, 오늘도 청정도량의 등불을 밝히며 범패승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어산 범패 어장인 지명스님을 찾았다. 대비정사는 불자들의 가슴속에서 이어져오고 있는 사찰인 만큼 불자들의 마음의 안식처로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한 도심속에서 대중에게 열려 있는 도량이다.

또한, 만남을 편안하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는 불자들의 도량이자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믿고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성불(自性佛)을 밝힐 수 있도록 이끄는 수행도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에게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가르치며,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들과 수행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대비정사 전경 및 저명주지스님

미니인터뷰 대비정사 주지 자명스님

■ 범패(梵唄)란 무엇입니까?

범패는 불교에서 재(齋)의식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음악을 말합니다. 특히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의 하나로 장단(張筭)과 화성(和聲)이 없는 단성시율(單聲施律)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신라 때 당에 유학 간 진감선사(眞鑑禪師)에 의해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은 범패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인도(梵)의 소리(頌)라는 뜻의 범패는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다. 부처님 공덕 찬양이 주 내용이라 음성 공양이라고 하고 중국 위나라 조지건이 물고기 가 노니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 하여 어산(魚山)이라고도 부른다" 범패에 출중한 승을 어장(魚丈)이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 통법(通梵)소리란 무엇이며 두각을 나타낸 어장은?

통법소리는 양산의 통도사와 부산의 범어사에서 전승되는 소리를 통 털어 하는 말입니다. 일제의 사찰령 당시에 통도사는 임실운·이월오 스님, 범어사는 대산·호산스님을 중심으로 어산회가 결성되어 도제양성이 이루어져 오다가 해방이후 가장 두각을 나타낸 어장은 범어사 출신의 용운스님이었습니다.

■ 범패승으로 활동한 동기는?

어산범패 어장인 통영 안장사 범성스님과 범어사 용운스님에게 1956년 전수받고 1957년 6월 1일 불교부산어산회 강습회 제 3

기생으로 수료한 뒤 본격적으로 통영 안장사와 부산 범어사에서 활동 하였으며 부산 동명불원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년 전 거제 대비정사를 창건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만산스님, 법안스님, 한파스님, 종옥스님 등과 오랫동안 범패승으로 활동하여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범패는 장단이 없는 짧은 소리이지만,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선정(禪定)에서 소리를 해야 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지 않더라도 여간 어렵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범패가 중국이나 일본것보다 음악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범패를 가장 훌륭하다고 감탄하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것을 푸대접하고 있지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우리의 것을 후세에 이어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대비정사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공부를 짓는 청정수행 인연처가 되어주는 그러한 도량을 이루기 위하여 도량정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걸 맞는 자성의 등불을 밝히는 수행도량 대비정사에서 많은 불자들이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865번지 대비정사 ☎ 055)636-3993



평생교육원 특별강의를 청강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